

준고랭지 곤달비 시설재배 경영성과 분석

장지혜*, 김홍기*, 양진호*, 이승용*, 노재중*, 최윤희*, 최혜진*, 고연실*, 최초롱*, 김경도*

*전라북도농업기술원

e-mail: jhjang24@korea.kr

Economic Analysis of '*Ligularia stenocephala*' Cultivated in Plastic Film House in Semi-highland

Ji-Hye Jang*, Hong-Ki Kim*, Jin-Ho Yang*, Seung-Yong Lee*, Jae-Jong Noh*,
Yun-Hee Choi*, Hye-Jin Choi*, Yeon-Sil Ko*

*Jeollabuk-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요 약

곤달비(*Ligularia stenocephala*)는 국화과의 쌍떡잎 여러해살이 식물로 10월 정식 후 이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확하며, 3년 이상 연속재배가 가능한 작물이다. 곤달비의 10a 당 수량은 1,090kg, 농가 수취가격은 kg 당 8,946원, 총수입은 9,753천원으로 보고되어 있다. 곤달비는 요리, 식재료 이용 외에도 향당뇨, 향비만 등의 약리적 효능, 주름개선, 멜라닌 생성 저해 등의 미용적 기능성이 확인되었으며, 다양한 부가가치로 인하여 산업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곤달비의 2021년 연평균 도매가격은 11,706원으로 판매는 전화, 소비자 방문, 온라인 판로 등을 통한 직거래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채류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소비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전라북도 내 곤달비는 남원 준고랭지 곤달비연구회원을 중심으로 임간재배를 포함하여 18.2ha 면적에서 재배가 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동부산악권 신소득 작목으로 곤달비를 선정하고, 친환경 생산기술 및 소비 편의 상품 개발 등을 통해 25년까지 재배면적을 2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곤달비는 대부분이 임간재배 형태의 보통재배에 의존하고 있어 일시에 출하되는 물량이 많아 수취가격 하락의 문제점이 있으며, 유사작물인 곰취와 출하시기가 겹침되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시설재배를 통한 조기재배, 촉진재배, 억제재배 등의 작형 분산을 통해 연중생산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곤달비 시설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농가 의사결정자료로 사용하고자 전라북도 준고랭지 곤달비 시설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성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곤달비 시설재배 조사농가 연령은 68세, 영농경력은 11년이며, 조사작목에 대한 경력은 8년이었다. 조사농가의 재배유형은 단동 형태의 비닐하우스로 재배면적은 1,155m² 정도이고, 재배품종은 보라곤달비이다. 곤달비 재배 농가는 곤달비 이외에도 고추, 감자, 배추 등 복합영농 형태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 중이다. 시설농가의 재배작형은 2월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하여 4월말까지 수확하는 작형이다.

곤달비 시설재배 농가의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10a 당 수량은 1,928kg, kg 당 농가 수취가격은 9,968원이며, 주로 1kg 박스 포장형태로 운봉농협에 의뢰하여 부산 농협중앙회 공판장을 통해 거래되었다. 곤달비 시설재배 농가의 10a 당 총수입은 19,220,796원이었고, 경영비는 14,465,292원,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금액인 소득은 4,755,504원으로, 소득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7%로 분석되었다.

경영비 구성비는 고용노동비가 4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포장재 등의 기타 재료가 25.9%, 영농시설 상각비가 16.1% 순으로 높았다.

곤달비 생산비를 분석한 결과 10a 당 생산비는 22,059,684원으로 생산비 구성비는 자가노동비가 33%로 가장 높았고, 고용노동비 27.9%, 기타재료비 17.0%순으로 분석되었다.

남원지역에서 재배하는 곤달비는 연속재배에도 감모율이 5%정도로 묘 갱신기간이 길어 종묘비를 절감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고용노동비와 자가노동비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9%로 수확 및 포장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 063-290-6124, F. 063-290-6095 jhjang24@korea.kr